

참여연구원 칼럼



죽은 혼들을 장사 지내는 마음의 작업

김 태 경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마음통합센터 연구단 사업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 감독과 스태프,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넘실대는 부산영화제는 상영관마다 각각의 개성으로 풀어 놓은 세계를 만나고 배우는 창이었다. 영화사 10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조명된 필리핀부터 구조련 중앙아시아국가들, 탈사회주의 동구권, 아시아 신생민주주의국가들까지 영화들은 너무나 다르지만 들여다볼수록 이해되는 같은 인간들의 삶을 보여주었다. 북한연구자로서는 조선영화 한 편쯤 찾아보고 싶다가도 넘쳐흐르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 문화의 이야기들에 압도되어 한 편이라도 더 보자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연구단이 공동주최한 <고려시네마> 연계 포럼에서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가지는 “서발턴 코스모폴리탄”으로서의 힘을 지적했지만, 그러한 코리아 디아스포라 역사에 얽힌 제국주의, 냉전, 분단의 문제는 지구의 여러 다른 공간들에서 또한 슬한 사람들의 투쟁, 일상을 만들어냈다. 한정된 시간에 영화들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투쟁과 일상을 두 눈에 담아내면서 어느 순간 카메라를 들고 시대와 사건들을 보여주는 감독의 마음에 다가가게 된다.

시간을 많이 할애한 영화들이 주로 다큐다보니 감독의 묵묵한 작업들을 감상하며 그들의 의도, 그들의 질문, 그들의 변화를 생각하게 된다. 왕빙의 <사령혼>은 ‘밍수이’ 3부작으로 507분이 되고보니 간쑤성 고비사막 자벤티우 노동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구술을 들으며 하루를 보냈다. 10시반에 들어가 두 번의 휴식을 거쳐 8시경 영화관을 나설 때는 자벤티우 수용소가 존재했던 고비사막의 영상이 눈앞을 계속 떠나지 않았다. 박사논문이 1950-1960년대 북한 사회주의 문예건설이라 중국 문혁 전야를 형성하는 1950년대말 ‘반우파투쟁’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공부가 짧아 답답하던 차에 왕빙의 작업은 노동을 통한 사상개조, 새 인간 형성을 처참한 죽음들과 고통스런 생존으로 실제 산이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 가족들의 아픔이 절절히 전해지면서 수용소 생활에 대한 기억, 그 이후 이어진 생존자들의 삶과 투쟁에 대한 자기서사를 통해 새 인간 만들기라는 것이 그때, 대체 과연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그들 스스로 그리고 보는 독자도 재구성하도록 만든다.

참여연구원 칼럼

‘반우파투쟁’으로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1957년부터 수용소가 폐쇄되고 구제조치가 취해진 1961년까지 자벤거우는 생존자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어찌 된 일인지 사람들만 보내 건설을 다그친, 사실상 위로부터 죽음을 명령한 곳이었다. ‘반우파투쟁’ 직전까지 ‘정풍운동’을 통해 당과 정부 관료들의 행정적 정치적 오류들을 아래로부터 비판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던 사회 분위기는 1957년부터 완전히 뒤집혔다. 해방 이전 국민당 소속이었거나 종교인이었거나 정풍운동에서 비판했다가 미움을 샀거나 혹은 별다른 이유없이 그저 마오쩌둥이 말한 ‘우파’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벤거우에서 노동개조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는 진정 자발적으로 노동개조를 통해 새 사람이 되겠다고 왔고 누군가는 아마 6개월 정도의 노동개조 훈련 이후 모든 직위에 복직될 것이라고 듣고 왔고 심지어 누군가는 자신이 수용소에 보내버린 이의 처지가 되어 수용되었다.

자벤거우농장, 밍수이, 자벤거우역 세 공간으로 구성되었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것은 식당 식사조였거나 시신묻는 작업조였거나 밖에 용역조로 일했던 일부뿐이었다. 간쑤성의 한 마을에서는 열 명이 넘는 출신들 중에 한 명도 돌아가지 못했다. 사실상 영화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이 모든 필름아카이브 작업의 핵심은 비참하게 죽어 변변한 제사조차 치를 수 없었던 희생자들의 영혼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 주는 것이다. <사령훈>의 첫 장면은 제사로 시작한 다. 마지막은 카메라가 자벤거우 수용소였던 지금은

깎여 토굴의 흔적만 남은 고비사막의 자리를 끈질기게 비춘다. 왕빙이 걸어다니며 바람이 심한 고비사막에서 비춘 것은 죽은 사람의 뼈들이다. 죽어서 여기 자벤거우에 묻힌 이들의 뼈가 세월이 흘러 사막의 흙이 날려 사라지며 드러났다. 노동은커녕 나중에는 굶어죽은 이들을 서로 묻을 힘조차 없어 따로 존재했던 시신 묻는 작업조가 사막의 흙을 파고 이불로 시신을 싸고 머리와 발 주변을 노끈으로 묶어 묻었다.

뼈들을 건사하고 위령비를 세우려던 생존자들의 처절한 노력은 2010년대 초 위의 압력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감독이 오래도록 뼈들을 하나하나 찍으며 응시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죽은 이들의 삶과 아픔을 기억하고 억압된 상태로 침묵된 그 공간의 역사를 드러내 그들의 죽은 넋에 장사지내는 것으로 다가왔다. 제대로 장사를 지내는 작업은 그것이 정치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을 관통하는 이러한 자벤거우 같은 사건에 관계된 것일 때, 죽은 넋들을 위로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바로잡고 자신들의 정치공간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그러한 감독의 마음의 작업에서 왜 우리가 거기 갔는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파헤치고 수용소의 기억들과 함께 계속 살아가야만 했던 생존자들에 대한 인간적 위로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성찰을 얻어 부산에서 본 고비사막의 영상이 오래도록 선할 것 같다.

평화바람 부는 파주 접경… “통일이 오고 있네” 짹짹하지만 임진각·도라산역 ‘북적’

최 종 환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20여년이 지났지만 한반도 분단은 여전히 간고하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물리적 거리는 불과 52km밖에 되지 않지만 남과 북은 섬나라인 듯 전혀 다른 세상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 이념으로 삼는 남한에서는 북녘의 일상조차 알 수 없다.

황석영 작가가 1993년 쓴 방북 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는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무지가 어떠한지 여실히 말해준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생각이 다른 상대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다. 이념이 갈라놓은 분단은 그렇게 길고 단단

해져서 단숨에 해결되지는 않아 보인다.

‘금단의 벽’에 최근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0년 남북화해 바람을 타고 잠시 일렁이는 통일 물결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이상 적대 관계였던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았더니, 남북 정상은 한 해 동안 세 번이나 만났다. 누구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단 얼굴을 봐야 상대의 의중을 알고, 다양한 해법을 내놓지 않을까. 정상회담과 남북한 교류는 분명 마음속 ‘분단 병(病)’을 치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사진> 임진각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땅

임진각서 ‘평화’ 기원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는 남북화해 분위기를 상징하듯 전국 각지에서 많은 시민이 찾았다. 늦가을을 맞아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이들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며 북녘을 바라보고, 새로운 한반도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1972년 세워진 임진각은 매년 200만 명이 찾는 분단이 낳은 대표 관광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손을 맞잡고 넘나든 군사분계선에서 약 7km 떨어져 있다.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평 2442㎡ 규모의 건물로, 3층 전망대에 오르면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는 물론 북녘의 풍경이 시야에 그려진다. 자유의 다리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한국군 포로 1,200여 명이 자유를 찾아 귀환한

다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특이하게 북한 땅이 바로 보인다. 지리적 특성 탓이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각 2km씩 총 4km에 이르는 지역에 DMZ(비무장지대)가 설정됐다. 남측 2km 구간을 연결하는 선이 남방한계선이며 여기서 다시 남쪽으로 5~20km 떨어진 곳이 민간인통제선이다. 하지만 파주시 임진강 주변은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의 물줄기 한강은 김포반도와 북쪽의 관산반도가 마주 보는 곳에서 임진강과 만난다. 긴 맥을 잇는 한강은 서해로 흐르는데 그 지점에 DMZ가 없다. 한강을 두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단풍이 짙게 물든 임진각 주변 산책로

평화누리공원에서 가장 먼저 들린 곳도 임진각이다.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대는 전쟁 때 총·포탄이 오고갔고, 몇 해 전에는 대북확성기와 전단 날리기로 시끌벅적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긴 호흡을 하는 듯 평온해 보였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황무지 같은 북녘은 고요했고, 전쟁은 오래된 역사의 흔적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짙게 물든 단풍도 시민들을 환하게 반겼다. 분단이 사람의 마음을 पी폐하게 만들고, 남북을 갈라놓을지라도 자연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속삭인다. 아리따운 풍광과 희망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분단과 통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니 괜히 어깨가 무거워졌다.

도라산 역 “기차는 달리고 싶다”



<사진> 철길이 막혀 한산한 도라산역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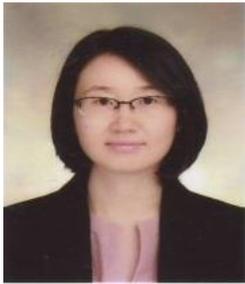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후 인근 도라산역으로 향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의 역 중 하나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 민통선 안에 있다. 역 이름은 해발 156m의 도라산(都羅山)에서 따왔다. 평양까지 205km를 남겨두고 남한의 최북단에 건설된 도라산역은 향후 경의선이 개통되면 세관업무를 맡게 된다. 지금은 북녘땅으로 기차가 달리는 날까지 잠시 ‘휴업’ 중이다.

지난 2000년 시작된 경의선 복원 사업으로 2002년 2월 초 도라산역이 들어서 남쪽의 임진강역까지 4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가 완료되었다.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도라산역에서 두 정상은 철도 침묵에 서명하며 남북통일을 염원했다. 통일이 금방이라도 닿을 듯했지만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고,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면서 철길은 녹이 쓸어갔다.

분단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이곳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정부가 남한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을 세 나라에 연결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다뤄졌고, 지금까지 분야별 실무회담과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됐다. 남북을 잇는 철도 연결이 구체화되면서 자유왕래도 머지않아 보인다.

현재 도라산역은 ‘역’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없지만 잠재성은 무궁무진하다. 통일 과정에서 이곳은 남북의 맥을 잇는 교통 중심지로,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진 시민들의 마음을 통합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비록 통일은 못돼도 분단으로 병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짝 막힌 내수경제를 살리고, 남북 경제협력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금상첨화다. 분단시대 금단의 벽이 하루빨리 허물어지길 기대한다.

* 본 기사는 10월 30일 <오마이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장윤미(서강대학교)

중국과 한반도에서의 '민족' 개념의 인식과 갈등구조 《현대중국연구》 제 20권 2(2018)

이 논문의 목적은 근대국가의 주체인 '민족(nation)'의 개념과 범주, 형성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역사적 과정을 통해, 과거 동일한 문명을 공유했던 중국과 한반도가 근대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민족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 남북한과 중국 지역에 내재된 갈등구조를 파악하는데 있다.

동아시아 문명권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함께 기존의 왕조체제가 붕괴되고 근대주권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중화민족론'이, 한반도에서는 '단일민족론'이 형성된다. 중국은 청 왕조가 몰락하면서 지배층인 만주족에 맞선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관이 형성되지만, 한족 중심의 혁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이 분열되는 문제에 봉착하며 결국 '중화민족'이라는 총체성을 강조하는 관념을 창출하게 된다. 그러나 '중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한족의 민족 상상으로는 완전한 '중화민족 국민 만들기'가 불가능한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중화민족론은 안으로는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밖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세력을 누르는 '힘'을 통해 강력한 국가주의의 양태로 표출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민족 개념은 처음에는 문명적 요인을 강조했지만 식민지로 전락한 뒤에는 점차 혈연적, 종족적 의미의 민족관이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만

들어진 '단일민족'론은 저항적 민족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북한이 한 민족/조선민족이라는 서로 다른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냉전이란 환경 속에서 각자 체제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민족'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족적으로는 동일 민족이라 상상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nation이 만들어졌고, 동시에 완전히 다른 nation은 서로 다른 문화적 ethnies를 복원하며 서로 다른 계보의 전통을 발명해나갔다.

근대적 민족(nation)이란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투쟁 과정에 따라 형성되고 만들어진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중국에선 중화민족이 "하나의 국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한반도에서는 "통일"이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단일민족 상상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중국은 국민국가화가 불가능한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조건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역시 하나의 국민국가로 담을 수 없는 이질적 nation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의 일방적 확산은 내부적 갈등과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종족 중심의 하나의 민족국가를 지향하는 통일담론은 바뀔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 내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 담론을 창안해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연구단 동정

■ 연구단은 9월 20-22일 간 탄자니아 수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Asia-Africa, New Axis of Knowledge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cholars(IIAS)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로, 올해 2회를 맞는 회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연구의 기존연구 흐름을 평가하고 새로운 지역연구를 위한 다양한 이론 방법론 및 풍부한 사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연구단은 최근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해 냉전기 평화 담론과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등에 대한 The Cold War, Peace, and Gift: Two Koreas after the Division 패널을 구성해 발표했습니다. 학회와 더불어 연구단은 르완다 내전의 평화협정을 맺은 곳이자 탄자니아 통합을 낸 ‘아루샤 선언’의 도시인 아루샤를 방문해 아루샤 선언 박물관 큐레이터와 탕가니르-잔지바르 통합 및 동아프리카 통합의 역사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갈등과 통합, 평화 만들기에 대한 아프리카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향후 연구단의 국제화 연구주제 진전에 좋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10월 7일 본 연구단이 공동주최한 부산 국제영화제 포럼, “고려” 시네마 인터-코리아 아카이브1(Inter-Korea Archive and Research: ‘Koryo’ Cinema)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인 영화에서 나타나는 하위주체 코스모폴리타니즘, 소비에트의 공적 위계관계와 고려인 고유의 사회 관계의 탈구, 소비에트 하위문화에 나타나는 고려인 재현 등 흥미로운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에서는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가 사회와 토론으로 참여하여 하위주체 코스모폴리타니즘 개념화에 의미 있는 관점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단 동정



◀10월 19일 본교 대회의실에서 정기 콜로키움을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는 한상언 <한상언 영화연구소>소장이 ‘영화로 보는 북한 사람들 마음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한 소장은 강의에서 한국전쟁 시기에도 영화가 대중들에게 보급되는 등 정치적 특성을 지닌 북한 영화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중들은 북한 예술영화의 발자취와 연대기, 시대별 특징, 향후 북한 영화의 발전상 등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실험과 실천

■ 지난 5월부터 7월, 인천지역 소재 한 초등학교의 학생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총 8회기로 구성된 지난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아동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지역 기반 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아동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교내 학생 생활 담당 교사들의 적극적 지원 및 본 연구센터의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는 11월-12월 중, 지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동들과 추가 신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상담 프로그램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연 연구교수(hylee@kyungnam.ac.kr)를 통해 문의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코리밀라 커뮤니티 초청 좌담회

사회통합과 마음통합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경계(Border)

사회: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강연: 포드릭 오투마 (The Corrymeela Community)
김동진 (Trinity College Dublin)
토론: 윤철기 (서울교육대학교)

일시: 11월 13일 (화) 늦은 2시 장소: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평화교육센터

코리밀라 커뮤니티는 1965년 설립된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평화와 화해기관이다. 여성, 시민권, 노동조합, 성직자 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공동체이다.

◀ 11/13(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본 연구단과 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코리밀라 커뮤니티(Corrymeela Community) 초청 좌담회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경계(Border)”가 열립니다. 코리밀라 커뮤니티는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평화와 화해기관입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블랙시트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11/10(토) ~ 11(일), 본 연구단과 문화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1박 2일 간 철원 지역 답사 “분단 앓을 걷기” 가 진행됩니다. 답사 참가자들은 금강산선 전 기철도 교량, 평화전망대, 구철원역터, 노동당사, 소이산 탐방로, 승일교 등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공간을 돌아보며 통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 본 답사는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철원으로 '분단 앓을 걷기'를 위해 출발합니다.

철원은 한국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도시이자, 지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도시입니다. 철원은 또한, 금강산으로 가는 철도의 시발점이자 한반도 중심에 자리잡은 교통의 요충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분단 앓을 걷기' 평화감성답사에서는 전쟁 이전 철원의 구시가지와 북한 땅이 보이는 전망대, 그리고 DMZ를 함께 걷습니다. 분단,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분단 앓을 걷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화연대 평화감성답사
2018. 11. 10. 토 ~
11. 11. 일 (1박 2일)

분단 앓을 걷기

주최 문화연대 분단문화연구위원회 | 북한대학원대학교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 남북한 마음통합 연구단 정기 콜로키움: 평화와 통일의 마음의 공간들
11/16(금) 16:30,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SSK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11월 정기 콜로키움이 개최됩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박동민 박사님(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북한 현대조선식 건축의 탄생: 담론과 실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인터뷰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한 것은 국제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종교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종교적 교류는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우영, “평양: 교황이 북한에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 BBC NEWS 코리아 2018.10.09.

제1 발표자인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신 남북 경험 시대의 개막: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현재의 대북 제재는 4단계로 나뉘서 봐야 하며, 단계별로 제재가 해제될 때마다 추진 가능한 사업이 각기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심이 많은 북한 인프라 재건사업은 3단계 해제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 베트남 등의 경험에 비춰볼 때 북미수교 시점과 일치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종합해볼 때 2년 뒤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부총장은 또 “비핵화시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은 중국보다는 베트남에 가깝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한식 모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세습권력이라는 특성에다 한국이라는 특수 관계가 존재해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양문수, “‘남북 경험’ 본격화 대비…北출신 기자가 말하는 대북 투자 전략” / 동아일보 2018.10.11.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비핵화에 상응하는 외교, 군사, 경제적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구갑우, “문 대통령 “북 비핵화 완결 전이라도 제재 완화 검토해야”” / 한겨레 2018.10.12.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평양공동선언 내용을 실천하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 같다. 남북 관계가 앞으로 더 진전될 것이라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 사업을 가속화시키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런 인프라 투자를 통해 북한을 개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통일 '다리 놓는' 文정부…”인프라 투자, 신경제지도 당기는 포석” / 뉴스토마토 2018.10.16.

언론 속의 심연북한연구소

칼럼

분단의 맥락에서 민족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새로운 민족'에 대한 좀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원칙은 있다. 바로 세계화 시대에 민족의 자리는 타자를 배제하거나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분단과 신자유주의로 파편화된 남북 시민들의 삶의 회복, 그리고 분열과 적대로 파괴된 모두의 공동체 복원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김성경, “[시론] 일본 속 '자이니치'는 왜 민족 정체성을 고집할까” / 중앙일보 2018.10.02.

절대 권력을 누려온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만이 ‘말할 수 있는’ 그 상징적 공간을 남한 대통령에게 내줌으로써 확고한 의지를 모두에게 증명하려 했다. 진심을 믿어주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은 권력의 달콤함도 포기할 수 있다고, 북한의 변화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 외친 것이다…(중략)…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결심이 내외부적인 저항에 좌절되지 않도록 기회의 틈새를 열어주는 일이다. 비핵화를 통해 북한을 개방하기로 마음 먹은 그를 협상의 파트너로 정당하게 대우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 몰아칠 큰 변화의 물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신뢰를 보내줘야 한다. 무엇보다 그 어떤 방해에도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그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의 진심이 상대방에 닿아 이 지긋지긋한 분단과 적대를 바꿔내도록 말이다.

김성경, “[야! 한국 사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 / 한겨레 2018.10.18.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건축의 꿈, 국제정치의 꿈

김석철(2005),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창비

건축학자 김석철의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이하 <한반도 프로젝트>)에서 펼쳐지는 도저한 상상력의 나래다:

역사의 흐름에는 결단의 시기가 있다. 중국 동부해안링크가 완성되기 전 황해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세계사의 흐름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 국가를 넘어선 도시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세계질서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국민국가가 등장한 17세기 이후 세계는 끝없는 분쟁과 전쟁의 와중에 빠졌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7천만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국가의 틀을 유지한 채 국가를 초월한 도시공동체가 이종나선과 같은 생명의 조직으로 국가간·도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인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길이 될 것이다.

건축의 꿈, 도시설계의 꿈이 국제정치의 꿈과 만나는 순간이다. <한반도 프로젝트>가 구상하는 ‘황해연합’-1단계 인천, 칭따오, 따렌의 도시연합과 공동해상공단, 2단계 한반도, 랴오닝성(遼寧省), 산둥성(山東省)의 경제공동체, 3단계 중국 동부해안링크와 일본열도 서남해안링크를 더한 황해연합-은 EU와 NAFTA에 조응하는 동북아판 지역공동체이면서도, NAFTA와 EU와 달리 국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묶고자 한다. 즉 국가와 도시가 얽힌 21세기 국제정치경제의 생명의 DNA를 만들고자 하는 놀라운 “공간적 상상력”이다. 황해연합은, 국경이 사라진 세계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노래하는 존 레논의 ‘이미진’을 방불케 하는 21세기 평화기획이기도 하다. 황해연합은 세계시간을 선도하고자 한다.

건축과 도시설계에는 무지한 불온한 국제정치학도도 이 대담한 상상력에 경의를 표한다. 냉전하면 군비경쟁이나 핵역지를 떠올리는 국제정치학도에게 황해가 “봉쇄된 냉전의 바다”였고, 냉전으로 인해 “거대한 인프라”인 황해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지적은 새로운 발견으로 다가 온다. 인천과 칭따오와 따렌은 서구 열강이 강제로 개항을 하고자 했던 도시들이었고,

그 도시들을 묶어 주던 황해는 서구열강의 전장(戰場)이기도 했다. 전장이었고 봉쇄된 바다였던 황해를 내해(內海)로 하는 도시공동체로서의 황해연합 구상은, 이 천년 이상 지속되었던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의 교역과 교류를 복원하는 것인 동시에, 백낙청이 서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유럽 같은 국가연합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식의 부질없는 담론에서 처음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황해연합의 단계론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국가만을 고려하면서 동북아나 동아시아나 동북아 중심이니 가교(架橋)니 하는 고색창연한 논쟁에 빠져 있는 정책결정자나 국제정치학자들은 도저히 설계할 수 없는 평화와 번영의 경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온하기에 국제정치학도는 “50년을 내다본” 황해연합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해 보기도 한다. 의심해 보는 이유는, 황해연합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다. 굳이 국제정치이론을 들먹이자면, 황해연합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교류를 통해 기능망을 구축하여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기능주의적 발상이다. “도시야말로 초거대 기업이며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한반도 프로젝트>가 주목하는 것처럼, “현재 산둥성, 랴오닝성과 한반도의 교역은 전성기 때의 지중해공동체보다 크고 발틱해안 도시동맹보다 크다.” 따라서 황해도시연합의 전 단계인 “한반도·랴오닝성·산둥성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반도 북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듯 보인다.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주체인 북한 도시들이 포함된 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남한만의 한반도도 아니고 한반도만의 한반도도 아니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한반도 북쪽이 황해연합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아쉬울 따름이다. <한반도 프로젝트>가 유럽연합의 모태로 생각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철강동맹’은 철강이라는 무기의 재료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정치군사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협력을 위한 조건이 형성될 때, 비로소 기능주의적 접근은 그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칼럼 연재

항해를 자신의 바다로 생각하는 남북한과 중국이 안보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때, 또는 북한 핵 문제로 불리는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이 해결을 위한 나름의 기제를 가지게 될 때, 또는 새로운 경로로 “한반도.랴오닝성.산둥성 경제공동체”가 동북아 차원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설득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항해연합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들의 협력이 최소한이지만 제도화될 수 있을 때, 항해를 품고자 하는 도시들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프로젝트>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들의 연합이 ‘시민도시’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규범적 차원을 추가하고 싶다.

건축의 꿈이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꿈과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항해연합을 구성하는 도시들의 내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항해연합의 도시들이 도농공존(都農共存)을 실현하지 못하고 농촌의 황폐화를 수반하는 도시들로 구성된다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항해연합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 프로젝트>는 이 근본적 질문을 비껴가지 않고 있다. 새만금과 행정수도가 항해연합과 연계되는 것을 보면서, 건축학이 공학이면서 예술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시금 도저한 상상력을 보자:

‘금강.새만금 어반클러스터(urban cluster)’는 행정수도 논란과 새만금 딜레마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금강을 주운(舟運)이 가능한 운하로 만들어 군산.부여.공주.대전을 금강유역 도시연합으로 만들고, 금강과 만경강을 신수로로 연결하여 금강유역과 새만금을 어반클러스터화하는 방안이다. 수도권과 경쟁하며 황해도시연합의 유력한 경제권역이 되게 하려는 계획으로, 신행정수도 논의는 이런 정도의 규모와 비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새만금 바다도시도 마찬가지로의 경우가 될 것이다. 정치공약으로 시작되어 생겨난 1억3천만평의 안바다에 해상공단을 만들면 항해공동체 같은 바다중심의 경제공동체에서는 강력한 경쟁우위를 지닌 경제권역이 될 수 있다. 34km의 방조제로 바다를 완전히 막아 육지를 만들면 항해공동체의 변방이 되지만, 방조제를 다 막지 않고 안바다를 살려 내부에 필요한 토지를 선별적으로 조성하면 갯벌도 바다도 육지도 모두 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경제권역과 직접 연계되는 합동공단을 만들어 호남평야가 중국 해안공단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